

Maoming, 합성수지 58만톤 확장

에틸렌 크래커 42만톤 증설 ... 범용 화학제품 생산능력 230만톤

중국 Maoming Petrochemical이 2003년 12월 에틸렌(Ethylene) 80만톤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에틸렌 크래커를 비롯해 에틸렌 회수(Recovery) 및 HDPE 생산 프로세스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.

이에 따라 Sinopec 및 미국 ABB Lummus이 공동개발한 에틸렌 생산 프로세스는 에틸렌 크래커 및 에틸렌 회수에 사용되고, 미국 Chevron Philips의 Connular Slurry 프로세스는 HDPE 생산에 사용될 전망이다.

에틸렌 및 합성수지는 Sinopec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Sinopec이 생산하고 있는 합성수지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 유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.

Sinopec은 Maoming Ethylene을 33억원에 인수한 이후 에틸렌 생산능력을 38만톤에서 80만톤으로 확대하기 위해 총 43억원을 투자하고 있다.

Sinopec은 중국 남부지역 석유화학산업 육성 및 핵심사업 확장을 목표로 에틸렌 생산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3개 플랜트를 건설하고 7개 플랜트의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.

프로젝트가 완료되면 Maoming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총 80만톤으로, 합성수지 생산능력은 44만톤에서 102만톤으로 확대되며 범용 화학제품 생산능력은 110만톤에서 230만톤으로 확대될 전망이다.

Maoming의 에틸렌 확대공사 기간은 약 32개월로 예상되며 현재 기술도입, 장비구입 및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의 기초공사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.

한편, 플랜트 디자인은 2004년 2월 완료될 예정이며 7월 착공해 2006년 7월 양산에 들어갈 전망이다.

<Chemical Journal 2004/03/15>